

여의도地下도시건설
서울·仁川운하로연결
韓·白 간 해저터널 건설

사회간접자본 A의 부분 대기업 분격투자 계획

「인프라 팀」 조직 황급할 “눈독”

시멘트·원유전용부두-鐵유통기지
영종도신공항 종합사업-조력발전소

직접투자 허용에 대비

여의도 광장 지하신澈층부에 상업도시 공간을 만든다. 서울과 인천을 운으로 연결하고, 해류를 이용한 힐조각전소를 짓는다. 혼해탄에 해저터널을 뚫는다. 이것은 정부의 21세기 구상이 아니라 민간기업들이 설계·증인의 거래 프로젝트들이다. 정부가 민간기업들에게 사회간접자본(SOC) 직접투자 기회를 허용할 것에 대비, 대기업들이 전담팀을 구성해 다양한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거대한 국

가 프로젝트는 정부가 기획부터 예산배정 사후관리를 맡고 기업들은 건설공사나 자재납품등의 보조 역할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방식이 바뀌어 민간기업이 설계부터 용지매수 자금조달을 책임지고 관리 및 소유권까지 갖게 되는 「주역」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때 문에 사업을 잘 고르면 엄청난 「황금일」을 건설 수 있어 대기업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다.

가 프로젝트는 정부가 기획부터 예산배정 사후관리를 맡고 기업들은 건설공사나 자재납품등의 보조 역할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방식이 바뀌어 민간기업이 설계부터 용지매수·자금조달을 책임지고 관리 및 소유권까지 갖게 되는 「주역」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때 문에 사업을 잘 고르면 엄청난 「황금알」을 발견할 수 있어 대기업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다.

朝鮮日報

1920年3月5日創刊
會長方又榮
發行-印刷人方相懋

榮勲相又方方人筆安秉
中吉大輔印金安秉
主編輯人筆安秉
副編輯局長安秉
서울市中区太平路1街61
(郵便番号100-765)

〈日本版〉
発行所 朝鮮日報
東京都千代田区丸ノ内1-4-5
永楽ビル 528室 〒100
電話代表 (3216)2711
購読料 1ヶ月 3500円
振替口座 東京7-99593番
本紙ニ要新聞倫理綱領とし
ウチ実践要綱を遵守한다

가장 옐을 물리는 그룹은 역시 三星이다. 삼성은 지난 해 말 건설·증강현실·엔지니어링·통신 등 4개 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인프라·주전위 험도 포함되었다. 이전에는 지역 부부 개발·화재 방진소와 태양광도 가로등·조례 발전소, 토서 고속철도와 부산·신안·여수·제주에서도 뉴딜을 틀고 있다. 이곳에서 기부금과 우선순위를 걸친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는 10개 분야로 구분된다.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이르기까지 신사업으로 예상되는 신공제품과 학교·인프라·도시·환경·에너지·개발·통신·도시 및 첨단 플랫폼이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9월 SOCO 민자 참여 조진위 회의를 거쳐 10개 분야별 20개 계약을 맺었다. 그 중 10개는 업체마다 1~2개 협력업체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된다. 예상되는 8만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또 협력업체와 협력 산업계가 함께 협력해 성과를 내고자 하는 목표다. 김민자 참여 조진위 위원장은 “조선은 대형 프로젝트에 적응하는 능력을 확보해 시장에 충돌해온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는원에 10만명 규모로 신 도시를 개발하고 있고, 서울을 세권 지하 광장개발로 사업성도 터진하고 있다.

결로하고 있다. LNG 발전소 건설, 도로·항만건설이 주된 관세부분이다. 기아그룹의 철강이 자동차 수출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산면에 물류 단지와 전용 환승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2002년까지 3천억원 들여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이화리 일대 공급수면 80만 평에 조성한다.

금곡·금곡화물터미널은 지난해 12월 100% 소유권을 확보한 장으로 하고, 양회·정유·위·원자

동차·건설·부상용 등에 기획
도입 입찰을 위하여 한 S
OC 주진위를 발족시켰다. 나
위회는 사업설명회를 겸하여
계획을 세우고 협력사간 협
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용역회가 만산 광원·아산 등
에 시멘트 전용화물부두를
건설하고 쌍용화물부두가 원유전
용부두와 저우소 건설사업장을
제작중이다. 성수국자동차는
수출전용화물부두 건설·설립건설
은 영종군 고양항·경북 고성·전
철 건설사업 참여를 준비하
고 있다.

원자력 설비사업에 뛰어들고 금속전산용 고속전자기
민사사업 신호제어부문과 협력발전소 건설사업에도
활용 계획이다.

Cの部分

朝鮮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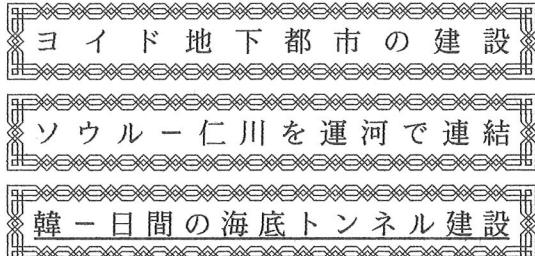
(1994年1月13日)

社会間接資本への大企業本格投資計画

《Aの部分》

ヨイド広場の地下深層部に産業都市空間を造る。ソウルと仁川を運河で結び海流を利用した潮力発電所を造る。玄界灘に海底トンネルを掘る。これらは政府の21世紀構想ではなく民間企業が設計中の巨大プロジェクトである。政府が民間企業に社会間接資本(SOC)直接投資の機会を許容するのにそなえ、大企業が専門担当チームを構成し、多様な参与方案を模索している。これまで巨大な国家プロジェクトは政府が企画から予算の割り当てや事後管理を引き受け、企業は建設工事や資材の納品などの補助的な役割にとどまっていた。しかし今後は社会間接資本投資の方式が変わり、民間企業が設計から用地買収、資金調達に責任を負い、管理および所有権まで持つようになる「主翼」として登場する見通しである。それゆえに事業を上手に選べば途方もない「金の卵」を手にするができる、大企業の目の色が変わってきている。

《Bの部分》



《その他見出部分》

直接投資の許容に備え
金の卵に“目星を
セメント・原油専用埠頭、鉄鋼の流通基地、
永宗島新空港の総合事業、潮力発電所

《Cの部分》

統一グループは、系列会社の一成総合建設がすでに進めてきた韓一日間の海底トンネル建設事業を必ず成就させるとの構想である。

《その他本文》

一番熱心グループはやはり三星だ。三星は昨年の暮れ、建設一重工業、エンジニアリング、物産などの4社を中心として、グループのインフラ推進委員会とインフラチームを組織した。そこで基本方針と優先順位を検討中の大型プロジェクトは10分野、20個以上に達する。首都圏地帯の新事業は永宗島の新国際空港、京仁運河、蘭芝島の開発、金浦新都市および先端工業団地などを目指している。盆唐と龍仁と水原を結ぶ巡回中量軌道新交通システムと、龍仁の複合新都市開発も見逃すことのできない投資計画だ。

京釜高速鉄道側では、龍山ヨクセグォン再開発、天安新都市開発、釜山駅再開発事業に参与する意志を表明している。三星建設を中心とした地下空間開発事業には、ヨイド広場の地下に産業・文化空間と駐車場を造り、地上には緑地公園を整備する計画も含まれている。仁川・永宗地区の埠頭計画、火力発電所と泰安半島の加露林湾の潮力発電所、東西高速鉄道と釜山圏新産業地帯にも目星をついている。

韓進グループは、昨年9月、SOC民間資本参与推進委員会を結成し、最も早くから事業への参与を明らかにし、投資計画を練っている。永宗島の新空港建設の基本施設と付帯施設、高速鉄道、港湾など、グループの特性にあった輸送分野に焦点を置いている。まずは3兆ウォンの投資規模との計画である。

具体的には新空港の旅客ターミナル、貨物ターミナル、滑走路、格納庫、機内食工場、給油施設など付帯施設と、空港の背後団地の建設、新空港と首都圏を結ぶ高速鉄道（62Km、複線）永宗島の橋梁（4.5Km）、永宗島のLNG複合火力発電所（40万KW級2基）、金海～沙上間の中量軌道新交通システムの建設事業、牙山湾の民間資本埠頭などである。グループ次元の推進委員会とは別に、大韓航空、韓一開発、韓進重工業など系列会社にも推進のための実務チームや推進委員会が構成され、事業計画を1月末までに確定することを目標にしている。グループの民間資本参与推進委員長の李泰元大韓航空副社長は、「空港関連施設に焦点を置き、誘致の対象が確定すれば他部門にも参与するつもり」と語り、「政府が検討中の基本法に、民間資本の償還期間中の利子などを政府が負担し、設計から運営まで民間の効率と経験を活用する側面が強調されるべきだ」と語った。

現代グループも昨年11月、グループと系列会社に推進委員会を構成した。現代建設、現代産業開発、現代重工業、高麗産業開発、仁川製鉄などが特に積極的である。今年の最も代表的な事業は、現代建設が進める栗村工業団地造成事業だ。今年から2001年まで、1兆9千7百億ウォンをかけて工場の敷地1050万坪を造成する。現代系列会社4社と226の協力企業が入居し、8万名の雇用効果を生み出すと見られる。

また現代建設と現代産業開発は、永宗島空港をはじめ、道路、港湾、民間工事に関心を持っている。現代重工業は熱併合（コ・ジェネレーション）発電所を検討している。大宇グループは昨年7月、株式会社大宇の建設部門土木本部に設けたSOC事業チームを、1月1日に建設部門社長の直轄に改編した。柳桂成常務の監督のもとスタッフ11名を確保しており、

今後30名の規模に拡大する計画である。

具体的な事業は、首都圏と釜山圏の中量軌道新交通システム、群山～長項新港湾の民間資本による埠頭、100万KW規模の火力発電所などである。また首都圏に10万名規模の新都市を開発するため立地を検討しており、京仁運河、ソウルヨクセグォン地下空間開発などの事業性も打診している。

ラーキングループも間もなく具体的な総合計画を確定する予定である。金星電線とラーキー開発が原子力設備事業に参入し、金星産電は高速電鉄関連事業の信号制御部門と熱併合（ユ・ジェネレーション）発電所の建設事業にも進出する計画である。

鮮京グループは、昨年11月に経営企画室の孫吉丞社長を委員長にS O C推進委員会を設置し、事業性を本格的に検討している。LNG発電所建設、道路・港湾建設が主な関心分野である。

起亜グループは、仁川港の自動車輸出の積み出しの滞りを解消するため、牙山湾に物流基地と専用の港湾施設を造成する計画である。昨年から2002年まで、3千億ウォンを投入して京畿道の華城郡雨汀面梨花里の一帯の共有水面80万坪に造成する。

双龍グループは昨年12月、金徳煥総合調整室長を委員長として、セメント、精油、自動車、建設、株式会社双龍などの企画担当役員を委員としたS O C推進委員会を発足させた。委員会は事業性を検討し計画を立て、系列会社間の協力体制を構築している。双龍セメントが馬山、光陽、牙山などにセメント専用港湾埠頭を建設し、双龍精油が原油専用の埠頭と石油貯蔵所の建設事業を計画中である。双龍自動車は輸出専用埠頭の建設、双龍建設は永宗島空港、京釜高速電鉄建設事業への参与を準備している。

浦項製鉄は、来たる3月から95年12月まで323億ウォンを投入し、馬山港に2万トン級の埠頭と鉄鋼製品の流通基地を建設する。12月からは牙山湾にも463億ウォンを投入して流通基地を造る。95年には207億ウォン規模の東海港石灰石船積専用基地建設にも参与する計画である。光陽港の航海誘導灯、港湾交通管制室（V T S）も計画されている。

統一グループは、系列会社の一成総合建設がすでに進めてきた韓一日間の海底トンネル建設事業を必ず成就させるとの構想である。